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2022. 05.26(목) 14:00 ~ 17: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주최 |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CONTENTS

행사안내	04
프로그램	05
환영사	06
축사	08
<hr/>	
기조연설1	15
기조연설2	25
발표 1	35
발표 2	45
발표 3	59



행사안내

행사 취지

“Beyond Responsibilities” 를 슬로건으로 CSR 활동 본연의 순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저변 확대에 앞장섭니다.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는 2011년부터 12회째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CSR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경제를 도모하고 당면과제를 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와 임팩트 투자 등 사회공헌의 경제적 측면만으로 그 가치를 재단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속 나눔의 소명을 격려, 그 진정성을 재조명 합니다.

기업과 시민, CSR 활동가 모두에게 2022년 영향력 확대 활동에 있어 많은 영감을 받아갈 수 있는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 아젠다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불평등한 교육, 보건 기회의 빈부격차와 결식, 돌봄 부재 등의 문제는 COVID로 더 선명하게 밝혀진 취약한 사회연결고리였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 및 구조적 차별 현상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COVID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산재되어있던 오랜 사회적 문제를 더욱 크게 터트리는데 뇌관이 될 것입니다. ESG, CSV, CSR의 궁극적 뿌리인 ‘지속가능경제’는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이자 선물입니다. 그 토대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과 공정성확대’를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이 선제되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이에 공정한 기회 나눔의 필요성과 견고한 사회적 연대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잠재된 재난, 재해 앞에 CSR이 사회적 안전장치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 수단을 함께 공유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30	개회식	[환영사]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
		[축사 1]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축사 2]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축사 3]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VIP포토타임
14:30 - 15:20	기조연설	글로벌 질병이 일깨운 사회적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CSR을 통한 기업의 진정한 자아(True Self)의 탄생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15:20 - 15:25	커피 브레이크	
15:25 - 15:55	발표 1	CJ의 문화사회공헌, 문화꿈지기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단장 / 현 CJ그룹 부사장
15:55 - 16:25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16:25 - 16:55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55 - 17:00	폐회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환영사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이투데이 대표 김상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님,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최재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임동균 서울대 교수님을 포함해 일일이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석학과 ESG담당책임자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시작한 이 콘퍼런스는 그동안 많은 기업의 참여 속에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행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CSR와 함께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는 '지속가능성'을 줄기로 파생된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활용 범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해 혼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 경영과 CSR는 분리 불가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ESG를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상생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SG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친환경을 앞세워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는 '그린 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불평등한 교육, 보건 기회의 빈부격차와 결식, 돌봄 부재 등의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 선명하게 밝혀진 취약한 사회 연결고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이 단순히 기업의 평판을 높이하고자 CSR와 ESG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 경제적 공정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CSR와 ESG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속 나눔의 소명을 격려하며 그 진정성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CSR 활동사례와 함께 향후 잠재된 재난·재해 앞에 CSR가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내일 아침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한다”라는 19세기 오스트리아 작가 에브너에센바흐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한 사회적 책임의 작은 실천은 내일 전 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위대한 보편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콘퍼런스에서 기업과 시민, CSR 전문가 모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보 공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1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강승규입니다.

먼저 이번 콘퍼런스를 마련해주신 이투데이 관계자분들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합심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선진국이 경제 회복을 최우선 하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속되는 양극화, 기회의 불공정과 상식적이지 못한 사회, 그리고 끝없는 갈등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SR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 추구하고 고용 창출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 등 포용과 공정에 기반한 지속 가능 경제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나 수단을 넘어, 소득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기업의 책무이자 국가의 과제입니다.

공정함과 상식, 그리고 포용은 단순히 자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필수적인 덕목이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안입니다. CSR의 가치 실현을 통해 우리는 취약한 사회의 연결고리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에게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콘퍼런스의 슬로건 "Beyond Responsibilities"처럼, 단순한 책임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CSR의 가치들이 한국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미래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하며, 이 길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2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오영교입니다.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개최를 축하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늘과 같은 좋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투데이 김상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책임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오늘 콘퍼런스 주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밝은 얼굴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음식점을 가득 매운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양극화와 구조적 차별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모든 면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직원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규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구조적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공정성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시혜적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성 확보에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최근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갖는 의미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미래세대 육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콘퍼런스가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드림



축사 3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입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상철 대표님과 이투데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이투데이는 국내 대표 경제지로 그동안 정도언론과 경제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한국경제의 성장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올해 콘퍼런스는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감염병,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면서 '이윤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역할이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되고 ESG경영이 새로운 시대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자선, 기부, 환경보호)을 위주로 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와 지역사회,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각종 환경·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ESG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상의는 최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5.24)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이해관계자 존중, 친환경 경영과 같은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고 '신기업가정신 협의체(ERT)'를 만들어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ESG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경제계에선 최근 출범한 신정부가 ESG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면서, ESG 세제/금융 지원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어 기대가 큼니다.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포용적 성장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콘퍼런스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기조연설 1

글로벌 질병이 일깨운
사회적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조연설 1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재천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지도로 진화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전임강사와 미시건대 조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출간된 동물행동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Animal Behavior)의 총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140여 편의 논문과 6권의 영문 저서를 출간한 것 외에도 '생태적 전환' '다원지능' '통찰' '통섭' 등 70권 이상의 책을 집필 또는 번역했습니다.

한국생태학회 회장,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 국제생물다양성협약(CBD) 의장,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명예대사를 역임했고, 현재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열고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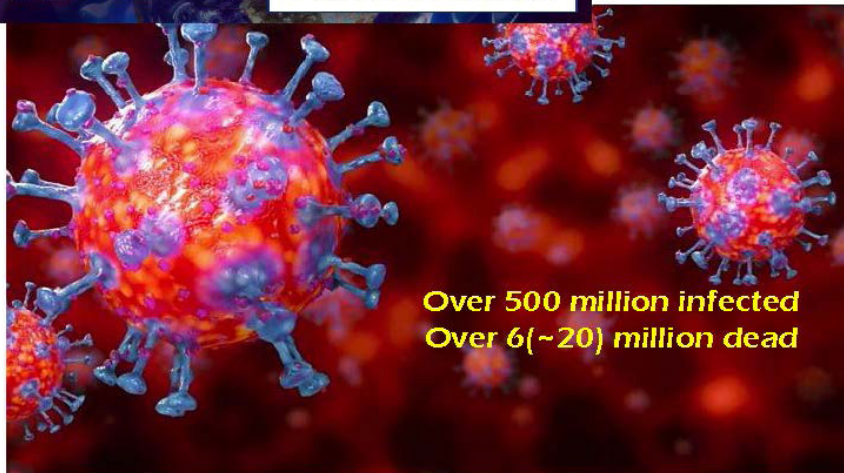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뉴 업노멀
Lessons from COVID-19 and New Up-normal



최재천
통설아카데미
이대 메코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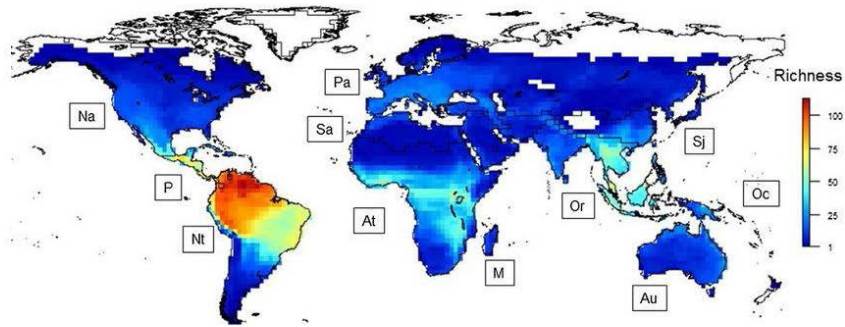
COVID-19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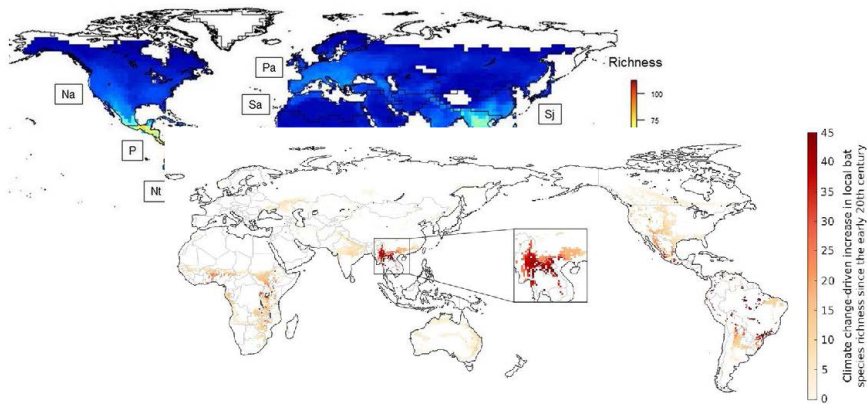
Over 500 million infected
Over 6(~20) million dead



지구온난화와 박쥐의 분포 변화



지구온난화와 박쥐의 분포 변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May 2021)



기조연설1 글로벌 질병이 일깨운 사회적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사점



생물다양성 불균형이 만들어낸 블루 오션





Evolution of vaccines
Triumph of life science



'화학' 백신
'Chemical' Vaccine

생태 백신
Eco-vac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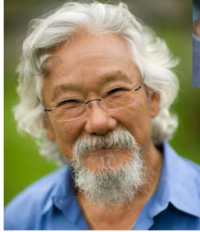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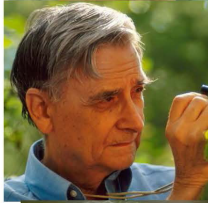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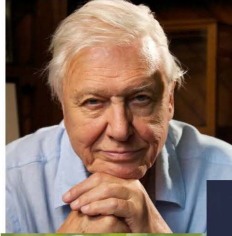


행동 백신
Behavior vac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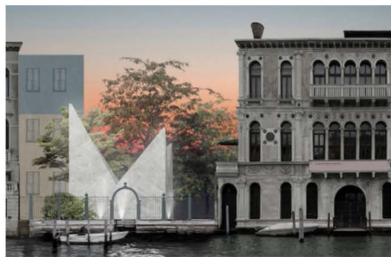


기조연설1 글로벌 질병이 일깨운 사회적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사점

자연 보호 → 생태 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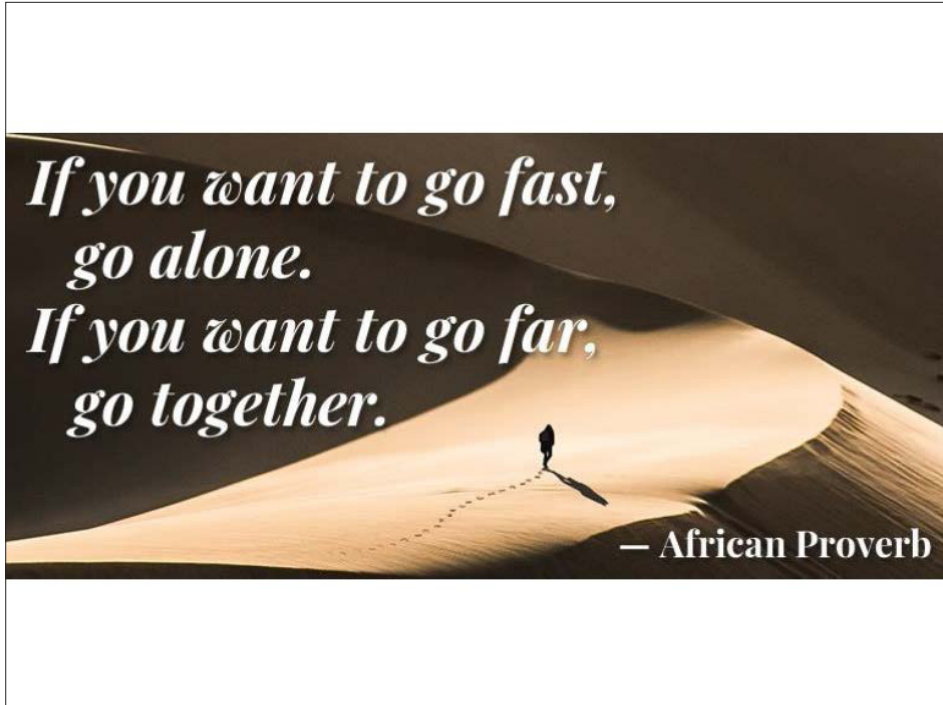
Eco-vaccine



Hanji House



Venice Biennale 2022



기조연설1 글로벌 질병이 일깨운 사회적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사점



“Ecological turn” 생태적 전환

국제사회—국가—기업--개인
CSR/ESG

From *Homo sapiens*
to *Homo symbiosus*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기조연설 2

CSR을 통한 기업의
진정한 자아(True Self)의 탄생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기조연설 2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임동균 교수는 서울대에서 사회학 학석사,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정치사회학, 인지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이론, 동아시아 사회 등을 망라하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과제로 아시아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웰빙에 대한 3년간 연구를 연구책임자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Journal of Asian Sociology 편집장 및 Quality of Life in Asia 책 시리즈(Springer) 편집 위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및 서울대 AI연구원 겸무연구원, 그리고 여러 학술지 및 학회들의 이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의 심리적 토대와 제도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연구들을 진행 중이며 국내 우수 기업들과 연계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및 강의를 해왔습니다.

CSR을 통한 기업의 진정한 자아의 탄생

"BEYOND RESPONSIBILITIES"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기조강연

2022. 5. 2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임동균



한 가지 믿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자신, 혹은 정말 진실된 내가 내면의 저 깊숙한 어디에 있다고 믿는다.
-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 믿는다.
- (심리학적 본질주의 *psychological essentialism*)

3

진정한 자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 진정한 자아, 혹은 참된 자아
 - the true self, the authentic self, the ideal self, the essential self, the deep self...
- 외부로부터의 규정이나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자아(the me-self or self-as-object)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진짜 자아**
- 심리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진정한 자아의 이미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Strohinger, Knobe, and Newman, 2017)

4

진정한 자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 참된 자아는 도덕적이고 선하다 (The true self is moral and good)**
 -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신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김 (Blok, Newman, Behr, & Rips, 2001; Nichols & Bruno, 2010)
 - 그 중 특히 도덕적인 부분이 바뀌거나 없다면 가장 크게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느낌 (Prinz & Nichols, 2016; Strohminger & Nichols, 2014)
 - 상대를 평가할 때도 도덕적 평가가 결정적 (Goodwin, Piazza, and Rozin, 2013): 부고 (obituary)란에 실리는 내용은 무엇인가?
 - 상대에게서 도덕적인 측면을 발견하면 그것을 곧바로 그 사람의 진짜 자아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인식 (Haslam, Bastian, & Bissett, 2004)
 - 어떤 사람이 나쁘게 변할 때보다도, 좋은 모습으로 변할 때 그것이 그의 더욱 진정한 자아에 가깝게 가는 것이라 인식 (Newman, Knobe, & Bloom, 2014)
 - 누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나쁜 동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그의 진짜 자아의 모습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기는 꺼려함

진정한 자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 참된 자아의 모습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다**
 - 일상의 자아 (self)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은 좋은 동기/생각 때문에, 남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동기/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판단 (자신-타인 관점 차)
 - 하지만 진정한 자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
- 참된 자아의 모습은 문화에 따라 다르지 않다**
 - 많은 비교문화심리학 연구에서 드러나는 동서양의 자아 모습의 차이
 - 하지만 진정한 자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

인간은 참된 자아에 대한 믿음을 인간에 대해서만 가지지 않는다

-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믿음을 국가, 록 밴드, 대학, 과학적 출판물들,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들에 대해서도 가짐(De Freitas, Tobia, Newman, and Knobe, 2017)
 - 기업과 브랜드들을 인간화(personification)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 본질적인 성질의 가정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설들이 제시 가능하나, 그러한 본질의 특질이 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일까?
 -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음(Strohinger, Knobe, and Newman, 2017)
-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가진 본질적 경향성(telos)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7

왜 기업은 도덕적이어야 할까?

- '이는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할까'의 문제와 다르지 않음
 -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계산의 영역이 아니며, 이윤의 영역이 아님
- 나의 진짜 자아(true self), 진정한 나(I)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
 - 사회적 의미와 선함의 추구는 나의 존재 이유, 즉 내가 태어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을 (재)확인 하려는 것
 - 그러한 가치 추구는 나의 자아(ego)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 가치 추구, 헌신, 신념 등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현실의 자아를 완성시키는 것

8

왜 기업은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 가치 추구를 통한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꿈꾸기 때문
 -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최상위 욕구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
- '적당히 사회 공헌 활동해서 걸로 치장을 좀 하고 말면 되지 않나?'
 -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위선적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낳음. 특히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위장된 선행을 하면 (moral cleansing) 사람들은 그러한 '선행'을 나쁜 행동으로 평가 (Jordan et al., 2017; O'Connor, Effron, and Lucas, 2020)



- "I still believe, in spite of everything, that people are truly good at heart."
- Anne Frank (1947)
-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사람들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선하다고 믿는다." - 앤 프랑크 (1947)
- 우리는 세상의 기업들이 원래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자 태어났음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

10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CSR

감사합니다

11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발표 1

CJ의 문화사회공헌, 문화꿈지기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단장 / 현 CJ그룹 부사장



발표 1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단장 / 현 CJ그룹 부사장

민희경 부사장은 사회공헌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공헌전략 수립 및 실행을 관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이자 사회적 혁신가입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영학 석사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뱅크 오브 뉴욕, 미츠비시 UFJ 은행 동경, 푸르덴셜 투자증권, 딜로이트 투쉬 회계법인 등 뉴욕, 런던, 도쿄의 국제 금융 무대에서 폭넓게 활동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투자유치본부장으로서 인천을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CJ그룹에서는 CJ인재원장, 인사총괄, CSV경영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CJ의 문화사회공헌, 문화꿈지기

2022. 05. 26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1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예술



‘문화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지만,
경제적 기본권에 비해 국가차원의 지원은 미흡

문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식

UN 세계인권선언 27조(1948)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UNESCO 세계문화보고서(2000)

“국가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문화기본법 4조(2013)

“모든 국민은 ...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



“문화의 향유”

“문화 표현 및 참여”

“문화 창의성 개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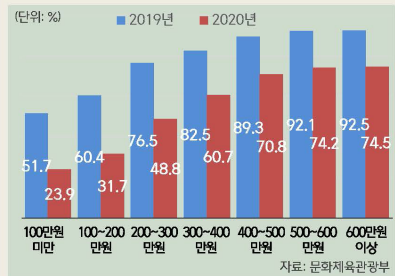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열악해진 문화예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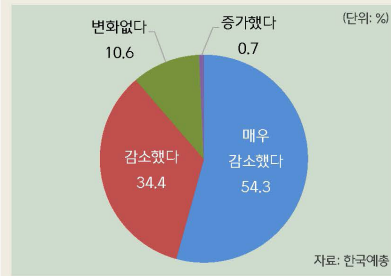
문화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지원하기 위한 체계 필요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 변화



- 코로나19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로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체험 격차 확대(2019년 41P → 2020년 51P)
- 소외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대폭 감소

코로나19 이후 예술인 수입 체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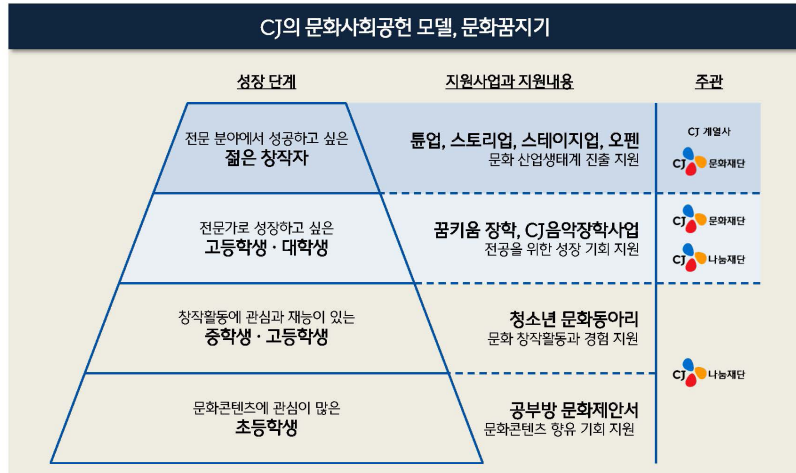
-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 부족
- 공연 등 취소/단축으로 신인창작자 발굴 기회 감소

3

CJ의 문화사회공헌 모델, 문화꿈지기



CJ는 아동·청소년이 문화로 꿈꾸고, 문화를 누리며 성장하여, 젊은 창작자로서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꿈지기'로서의 사회공헌 모델을 확립



4

발표 1 CJ의 문화사회공헌, 문화꿈지기

공부방 문화제안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공부방 시설에 문화교육과 문화체험 캠프의 기회를 제공



공부방 문화제안서 진행 과정



5

청소년 문화동아리 1.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중·고등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금과 문화 창작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 문화동아리 (Explore)	청소년 문화동아리 (Advance)
<p>문화동아리 기획 창작 발표</p> <p>CJ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특강·체험활동 지원</p> <p>✓ 585개 동아리, 5,200여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6개 부문 250팀에 창작 활동비, 교육 콘텐츠 및 진로 멘토링 지원 •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부터 창작까지 작품을 완성하며, 완성된 작품을 홈페이지 동아리 캐스트에 소개 	<p>✓ 108개 동아리, 1,000여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re 문화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 26팀 선발, 5개월 간의 부문별 커리큘럼을 개발해 심화 과정 지원 • 문화꿈지기 멘토단의 단계별 진로멘토링 지원 • 창작작품 포트폴리오 제작 및 쇼케이스 참여 기회 제공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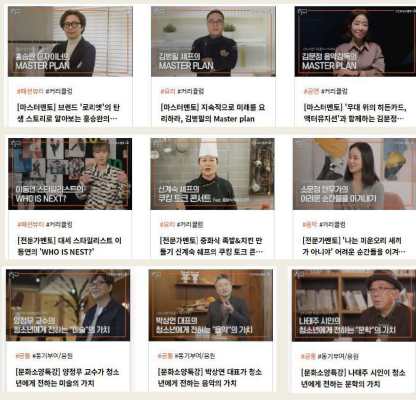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동아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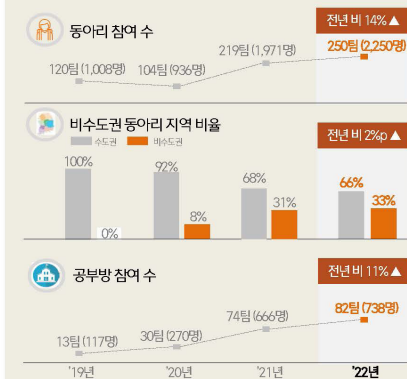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동아리는 코로나19 이후 문화교육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비수도권 및 공부방 참여가 확대되며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문화교육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



비수도권 및 공부방 참여 확대



7

꿈키움 장학, CJ음악장학사업



학업 및 특기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과 미래 음악인재들을 선발해 꿈을 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장학 지원



꿈키움 장학



- ✓ 70명의 학업 장학생 지원
- ✓ 78명의 예체능 장학생 지원

- 1인당 최대 1,700만원의 교육지원금과 멘토링 등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 대학 진학 후 장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여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체계화

CJ음악장학사업



- ✓ 143명의 버클리음대 장학생 지원
- ✓ 59명의 해외음대대학원 장학생 지원

- 버클리 음대 및 해외 우수 음악 대학원 등 글로벌 뮤지션으로 성장을 희망하는 인재를 발굴 및 지원
- CJ문화재단 공연 기회 제공, 음악 활동 시 홍보·마케팅 등 통해 시장 진출 지원

8

발표 1 CJ의 문화사회공헌, 문화꿈지기

튜업, 스토리업, 스테이지업



대중문화 소외 영역의 실력 있는 창작자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



튜업(음악)	스토리업(영화)	스테이지업(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앨범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공연 개최 국내외 콘서트, 페스티벌 지원 <p>✓ 169팀의 뮤지션 지원 ✓ 51장의 음반 제작 ✓ 공연 매진, 해외투어, 각종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편영화 제작 및 멘토링 지원 국내외 단편영화제 출품 지원 해외 단편영화제/상영회 개최 <p>✓ 170명의 창작자 지원 ✓ 장편영화 36건, 단편영화 21건 ✓ 다수의 영화제 초청과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딩공연 제작 및 멘토링 지원 기획공연 지원 제작사 매칭, 시장 진출 지원 <p>✓ 125명의 창작자 지원 ✓ 공연 및 상업 뮤지컬 98건 ✓ 다수의 수상 및 투자 유치</p>
<p>멜로맵스 17기 튜업</p> <p>발매 음원다다 차트 1위 4,000석 공연 매진</p>	<p>칠옥 2020 지원 단편</p> <p>2021 부산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단편 작품상</p>	<p>아영가 2014 지원 작품</p> <p>2016~2019 상업공연, 한국뮤지컬어워드 수상</p>
<p>아도이 19기 튜업</p> <p>애플 뮤직 차트 1위 서울가요대상 특별상</p>	<p>유빈과 건 2021 지원 단편</p> <p>2022 전주 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대상</p>	<p>여신님이 보고 계셔 2010 지원 작품</p> <p>2013~2019 상업공연,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p>

오픈(OPEN)



차별화된 창작환경과 콘텐츠 기획개발, 제작/편성 및 비즈 매칭 등 실질적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내 유망창작자를 육성



STORY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평 규모 창작공간(개인 집필실, 회의실, 라운지) 제공 업계 최고 전문가 멘토링, 정기 특강 및 세미나 제공 드라마 및 피칭 영상 제작 <p>✓ 161명의 스토리텔러 발굴 ✓ 드라마·영화 계약 15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창작소(작업실, 녹음실, 공연장, 라운지) 제공 업계 최고 작곡가 멘토링, 정기 특강 및 세미나 제공 완성 음원 비즈 매칭 <p>✓ 58명의 작곡가 발굴 ✓ 작곡 계약 250건</p>
<p>갯마을 차차차</p>	<p>Panorama 아이즈원</p>
<p>왕이 된 남자</p>	<p>그런 사람 정승환</p>
<p>블랙독</p>	<p>비와 당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p>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CSR

THANK YOU

11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발표 2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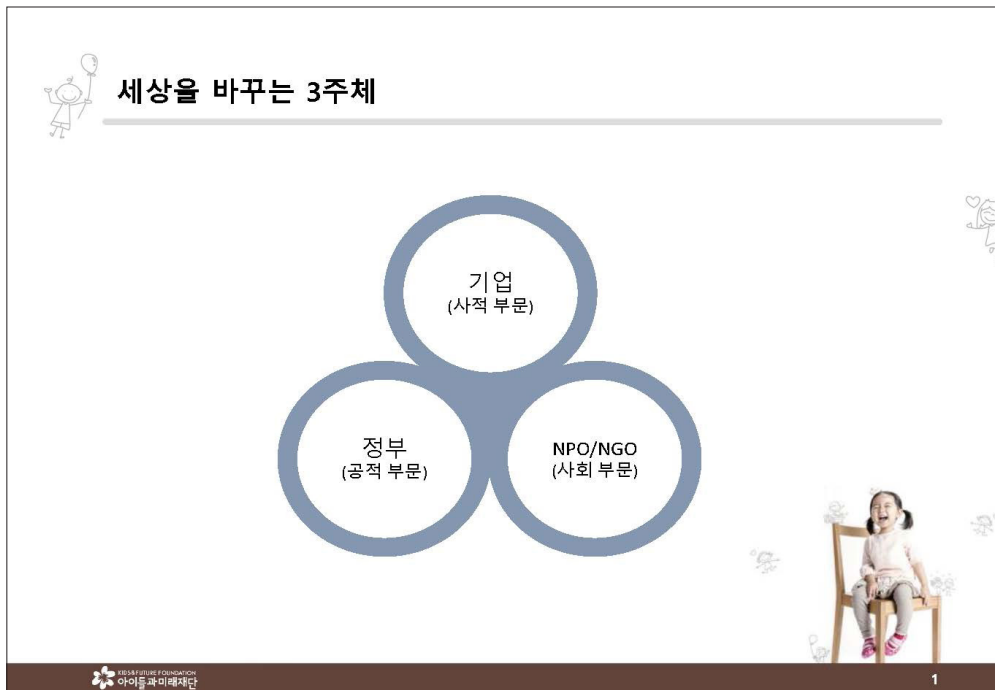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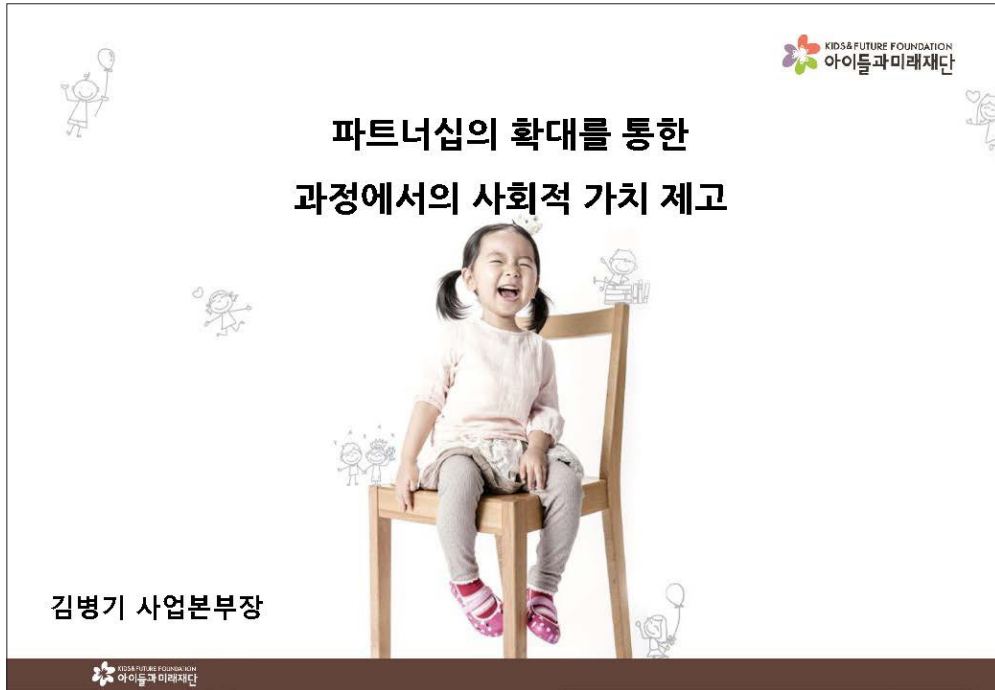
김병기 본부장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전산학을 전공하고 20년 가까이 언론과 IT분야에서 일했습니다. IT분야에서 비영리분야 업무관리솔루션을 만들며 비영리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영리기업에서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기업사회공헌 전략수립에서 사업평가 영역까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공헌 전문 재단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인 GIC(Google Impact Challenge)에서 모금단체 정보제공 프로젝트로 Top10에 들어 2억5천만원의 상금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CSR의 이해관계자 범위를 넓히고 기업사회공헌사업의 수행자원의 외연을 확장하는 collective impact에 관심을 가지고 섹터간 융합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섹터의 R&R

Finance resources

Duty

Will

Private **Public**

Interest

정부
(공적 부문)

기업
(사적 부문)

NPO/NGO
(사회 부문)

변하는 것
: 각 주체의 크기와 역할

변하지 않는 것
: 파트너십이 크고 넓을수록 효과도 크다

→ **오늘의 주제**

아이들과미래재단


2

아이들과미래재단 - 시작부터 지금까지 파트너십, CONNECT


아이들과미래재단

3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아이들과미래재단은 미래를 바꾸는 사업을 만들어 기업과 함께 개척합니다.



4



삼성증권 청소년경제교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쳐서 될까?

2004년 어느 날


Q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국영수 성적만 잘 받게 하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A 과거시험이나 사법고시와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Q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Life Skill이 무엇일까?
A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경제에 대한 이해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Q 경제이해역량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A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 콘텐츠를 만들자.

Q 아무리 찾아도 어린이용 경제교육은 없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A 미국의 Biz-World라는 어린이용 경제교육콘텐츠가 있다. 이것 한국화하자.

Q 공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A 당연히 저음부터 정부를 움직일 수 없다. 기업 펀딩으로 시작해보자.



5

삼성증권 청소년경제교실 (2005~)






경제교실지침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하고, 제19조 제1항을 제외한다.]

제4항 《국가적 필요》은 국가는 국가 안전에서 경제교실의 운영이 중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국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특정한 경제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 《경제교육의 활성화》은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선형과 국정의 경제(해역)를 조율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국정의 경제교육에 관한 계획이나 관료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경제(해역)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대상)을 포함한 경제교실의 협상(외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제(해역)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점이 조인, 검토(외국)를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들과미래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은 기업의 공익 needs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합니다.




아이들과미래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이마트 Kids Library

전통시장
과 상상할
수 있을까?



Q.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위협은?
A. 젊은 세대들이 시장에 오지 않는다.

Q. 젊은 주부들은 시장에 왜 가지 않는가?
A. 정찰제 구매와 아이동반이 어렵다.


Q. 전통시장 내에는 유통발전산업법으로 마트를 열 수 없는데?
A. 지자체와 시장상인회와의 협약으로 가능하다.


Q. 시장상인들이 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좋아할까?
A. 시장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상품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마트를 만들자. 이름은 상상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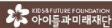
Q. 그래도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불편하지 않을까?
A. 주부가 장을 보는 동안 아이가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자.

Q. 그 곳 운영은 어떻게 하나?
A.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미래재단
8

파트너십을 맺자

방향 설정 → 파트너 모색 **이마트**

이마트
&시장상인회
&지방자치단체
&아이들과미래재단

핵심
원칙
합의

파트
너십
공식화

목표
설정


이해
관계자
자문


이마트
&시장상인회
&지방자치단체
&아이들과미래재단
&수탁기관

검토
개정

자원
동원

실행
계획
수립




아이들과미래재단
9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 가평점 운영 계약서

기평점점 (이하 "점장") 이나 한국·세계최대점인 키즈를 독립운영할 수 있을 것을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와 "이마트"와 "K&M"의 담당자(이하 "운영")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서"를 체결한 날 이후에 합의한 대로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운영의 권한이 없다.

2.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는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와 "K&M"은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는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한다.

4.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는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의 운영을 지원한다.



아이와 라이브러리를 찾은 한 엄마는 "따뜻한 운동 바닥에 친환경 환기장치까지 아이들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이 공간에 대해 흥미로워 하고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라이브러리는 지역 아동 등에게 어린이 서적, 체험형 교구, 상호작용형 시 컨텐츠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 지역 사회의 소통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선 경제타운의 상업이 속속 개장하면서 시장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인일보, 2021.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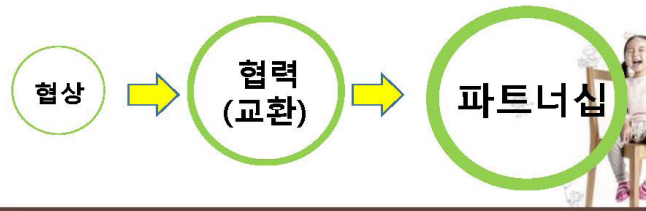
이런 걸 잘 하려면 파트너십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이란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이 업무분야를 넘어 협력관계를 맺는 것으로,

1.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2. 이익과 위험을 공동부담하며
3. 협력관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4. 필요에 따라 합의내용을 재검토기로 동의하면서

타 영역간 제휴, 또는 전략적 제휴관계 등으로 정의한다.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이런 걸 잘 하려면 파트너십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핵심원칙에 합의하라.

- **공정성**은 '평등'과 다르다. 평등은 재정적 자원이나 공적인 권한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어쩌면 아예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반면, 공정성은 각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대표성에 의해 측정되며, 훨씬 쉽게 달성 될 수 있다. 이는 서로의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문제이다.
- 공통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솔직하고 모든 정보에 노출되어야 '감춰진 의제(hidden agenda)'를 없앨 수 있다. '신뢰'를 협력과정에서 필수요소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뢰를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협력관계에서의 **투명성**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어 줄 수 있다.
- **상호이익**에 대한 원칙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지 모른다. 이익추구를 동기로 운영되는 기업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사회나 공공기관들은 파트너십의 수혜자가 기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은 부문간 협력기관으로서 '이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이익은 '혜택'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업/공공/NGO가 생각하는 서로의 혜택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사회공헌사업 과정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듭니다.





COVID-19 구호품

기부 기업 → 2억원 → **수혜자**

물품 구성 → 물류 → 포장 → 배송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이 근무하는 사회적 기업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15개 업체를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선정해 해당 기업이 생산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용품과 학용품, 영양식 등의 물품 구입에 사용된다.

<디지털타임스, 2020.08.26>

2억원 + α

200,000,000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기업 13개, 예비사회적기업 2개
취약계층고용인원 119명


아이들과미래재단

교육사업



<p>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영어교육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및 일반아동 영어교육 <p>영어교육 경력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콘텐츠 개발과 영어교육을 지원</p>	<p>아디다스 (마이드림F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 체육활동지원 - 축구/농구/피트니스 <p>엘리트 은퇴선수들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체육수업을 지원</p>	<p>현대오일에너지 (스마트모빌리티 공학체험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아동 STEM교육 <p>일반 교육업체가 아닌 대학생들 멘토강사로 양성하여 교육경험과 장학금을 지원</p>
--	---	--

아이들과미래재단


발표 2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16



공익사업

동시 고려

국민

기업 (기부자)

정부



아이들과미래재단

연결

공익

공익

결국 자원(돈)을 공익에 맞는 서비스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일.



17



이렇게 일하고 성과를 내려면 역시 파트너십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상호이익



Q&A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CSR 2022 함께하는 기업 국제 콘퍼런스

BEYOND RESPONSIBILITIES

SR의 실천적 대안 <포용과 공정>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2년 한국이 윤리경영 초창기일 때 산업정책연구원에 입사하여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공유가치창출(CSV), ESG 등 민간연구 및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정책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13년도부터 '18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의 전담 기관 실무연구총괄로서 활동하였으며, 국내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 1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대상 장관상 (개인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과학기술문화 CSR/CSV 지원체계 구축연구 등 다수기업의 CSR/CSV 측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학협력 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의 윤리경영, CSR 및 ESG 확산을 위하여 다수 기업의 ESG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논의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 Beyond responsibility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22.05

Copyright © 2022 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산업정책연구원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 1993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으로 설립된 경영 연구기관
-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 정책자문, 기업 전략 개발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최근 Switzerland 분원을 설립하여 UNITAR 등과 UN SDGs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



경쟁력 연구

- 국가/지역 경쟁력 연구
- 산업/대학 경쟁력 연구
- 지역경제혁신대상

브랜드·디자인 연구

- 브랜드 가치평가 및 진단
- 브랜드 마케팅 연구 및 컨설팅
- 디자인정책 및 경영 컨설팅
- 브랜드 경영문화 확산 사업

지속경영·CSV 연구

- 지속경영, 윤리경영 연구 및 진단 컨설팅
- 지속경영인증사(CSO) 자격 검증
- 윤경ESG포럼 운영
- CSV포터상 시상

펜실베이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2017 Best Think Tank Network 부문
국내 1위(세계 62위) 선정

한국경제신문 주관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산업정책연구원 23위 선정
민간 독립연구소 중 1위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CSR의 본원적 가치

- 기업의 진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원적 가치가 확대 및 진화되어 옴(영역 확대, 요구강화, 형태 다양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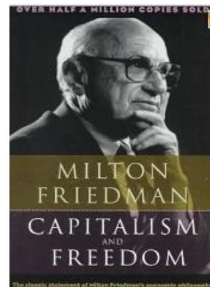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시대정신의 변화

-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외연과 깊이는 확대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주류화가 가시화됨

1970 2019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I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시대정신의 변화

- 기존 자본주의 반성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향 메시지 지속
- VS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

BR Business Roundtable™
Where Profits are all we care about.

美 주요기업 CEO "기업목적은 주주이익 넘어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무" 선언

GE, 애플, 아마존, 월마트 등

베이지스·팀콧 등 CEO 181명 참여
"기업의 가치, 새롭게 정의"
"고객, 근로자, 납품업체 등에 가치 이전"
기사입력 2019-08-20 10:56

2019년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 요약

-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 공정한 보상, 혜택 제공 등으로 직원들에게 투자한다.
- 납품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한다.
-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 참여를 보장한다.

자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I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CSR의 시대적 변화

- 시대별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CSR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기준이 심화 및 다양화되어 지금의 CSR의 정의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최근 기업 비즈니스와 사회문제를 연결하는 공유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짐

~50년대

SR(Social Responsibility)
Bowen(1953)
Drucker(1954)
개인 → 기업조직

60년대

SR(Social Responsibility)
Davis(1960, 70)
Frederick(1960)
McGuire(1963)
CSR개념 정착

70~80년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ald(1970)
Johnson(1971)
Steiner(1971)
Jones(1980), 등
글로벌 경영/비즈니스 케이스

90년대~'00년대

CSR as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TBL
Carroll(1991)
Elkington(1998)
CSR확장, 환경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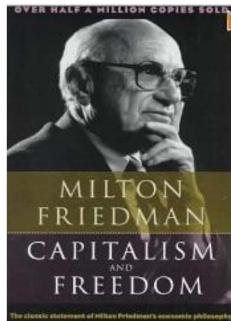
'00년 이후

Shared Value
Porter & Kramer(2011)
Elkington(2019)
공유가치, 사회적 가치

출처 : <https://irfanhandrian.wordpress.com/2015/11/05/csr-history/>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화를 거쳐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시기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Keith Davis
Arizona State University
(1967, 73)

7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60, 70년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정
: 사회적 책임이 개인의 행동수준을 초월해야

- 대중 의견 및 검증 Companies should be open to public input and scrutiny
- 사회비용 및 효과 고려 **Social costs and benefits** should be factored into their business decisions and also priced into products
-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참여 Where it has the necessary competencies, the company as a citizen should be involved in **social affairs**
- 장기적 이익에 기여 There might be **long-term economic gain** from behaving responsibly



Keith Davis
Arizona State University
(1918-2002)

"...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men need to be commensurate with Reviews their social power (Davis, 1960: 71)".

Davis, K. (1973), "The Case for and against Business Assumption of Social Responsibiliti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16, No. 2, June, pp. 312-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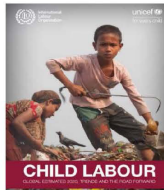
8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

전통적 기업운영 방식(재무관점)이 기업에도 사회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반성에서 시작. 자본의 기본적 속성이나 본원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



9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CSR의 여정(Journey)

- 일부 학자는 CSR의 발전을 기업의 CSR여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단계별 핵심개념과 지향점, 추진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함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 외부요구사항의 준수, 일하는 방식의 ESG 준수 및 부정적 영향 감소, 사회가치 창출 증분 등

지배구조	인권노동안전	환경경영
반부패윤리경영	제품과 서비스	환경혁신 제품과 서비스
	공급망	
	지역사회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Business case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을 택할 경우 기업은 주주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If you fail to work on behalf of the public interest and take shortcuts that place the public at risk, you will also fail your shareholders."

-Nestlé Chairman Peter Brabeck-Letmathe-



License to operate

- 사회계약 이론에 근간으로 기업의 광범위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중이 수용하는 것
- 민주주의 제도처럼 기업의 이해관계자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 공급망)가 기업활동에 대한 암묵적 혹은 명확한 승인



12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비즈니스 케이스

- 각 이해관계자별 요구하는 지표가 다름
- 산업별 격차 존재
- CSR의 사내 인식과 CSR경영의 심화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다수 연구는 지방, 국가, 지역별 컨텍스트가 BC에 주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

10대 기업성과 평가요인	
재무성과	재무성과 창출요인
주주가치	고객유인
매출액	브랜드 가치 및 명성
운영효율	인적 및 지적자산
자본 접근성	위험 프로파일
	혁신
	사업면허

기업 지속가능경영 평가요인	
기업내부	윤리, 가치, 원칙
	책임경영 및 투명성
	작업환경 및 인권
	경제/사회/환경책임경영
환경	환경프로세스
	환경제품
이해관계자 참여	기업 파트너 참여
	非 기업파트너 참여

출처: SustainAbility, Buried Treasure: Uncovering th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2001

1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License to operate

이해관계자 고관심

인권
소식
제품과 원료
공정보상
여성
산림 황폐화
빈곤 및 불평등
아동 및 청소년
동물복지/실업
포장 및 폐기
기후변화
포용적 경제
영양
지속가능한 소식

✓공통가치
✓업연계
✓밸류체인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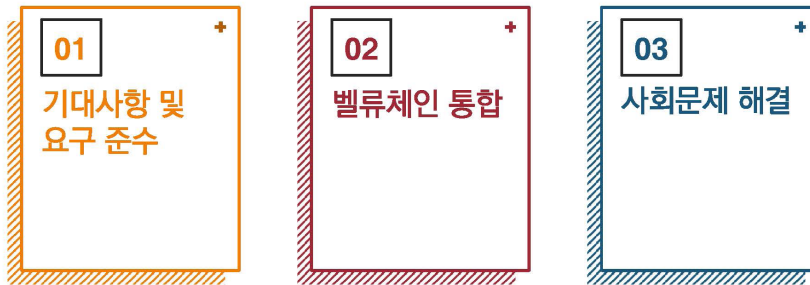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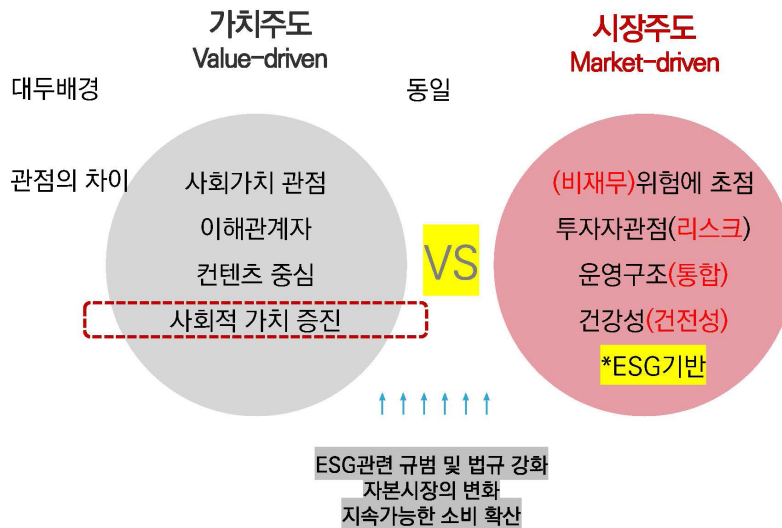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CSR의 본원적 가치 및 기대효과

-CSR의 미션과 목적은 사회 및 기업의 진화에 따라 같이 변모해왔으며,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밸류체인을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기업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공유가치 창출 등을 주요 가치로 볼 수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진화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CSR의 국내현황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EBPI지표

- ESG리서치 센터는 국내 언론사와 공동 개발 중인 ESG BPI (Best Practice Index, 이하 EBPI)지표를 근간으로 기업을 진단, 실사, 개선을 추진할 예정
- EBPI지표의 경우 산업부 K-ESG지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요소를 포괄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사업의 진단대상 기업의 산업,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예정(EBPI지표)
- E/S/G별 세부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범위반 사항 등의 조정지표를 반영함

지속가능 경영 추진체계 (1) 경영진의 지속가능경영 의지 (2) 지속가능경영 전략 (3) 이해관계자 참여 (4) ESG 이니셔티브 참여	지배구조 (1) 이사회 구성과 활동 (2) 이사회 내 ESG관련 위원회 운영 (3) 주주가치중진 (4) ESG리스크 관리 (5) 윤리경영 및 반부패활동	지배구조 (Governance)
인권·노동 (1) 인권준중 및 차별금지 정책 (2) 일자리창출 및 역량개발 (3) 안전보건 (4) 일과 삶의 균형	공급망 (1) 공정거래 (2) 공급망 관리 (3) 상생경영	사회 (Social)
소비자 (1) 소비자 안전 및 분쟁해결 (2) 정보보호 (3)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지역사회 (1) 전략적 사회공헌 (2) 자원봉사 (3) 기부금	
환경경영 (1) 환경경영 정책 및 공시 (2) 환경위험 식별 (3) 친환경 자금조달(ESG/녹색채권)	환경성과 (1) 에너지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2) 온실가스 배출 (3) 순환경제 (4) 친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	환경 (Environment)

(조정지표) CEO의 부정행위, 부정부패 처벌, 노동법 관련 위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 환경 관련

CSR의 국내현황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EBPI 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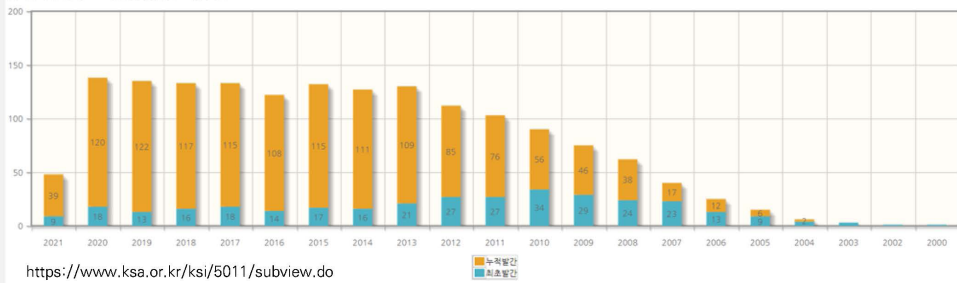
- 2021년 ESG 열풍 속에 현재를 평가함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ESG 이행 기초선(Baseline)'을 마련
- 2003년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최초 발간 이래 많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계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 산업계 ESG 이행성과 및 공시자료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개발
- 후발 추진기업을 위한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ESG-washing을 방지하는 자료로 활용

이사회 내 ESG/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설치 45.5%	여성 임직원 임금 비율 남성대비 66.7% 근속 연수 남성대비 81.3%	리스크 관점에서의 환경영향 관리 TCFD 지지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구체화
여성이사 선임율 - 사외 93%, 사내 7% 49%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도입 현황 75%	ESG / 녹색 / 사회적 채권 발행 -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자금조달 24.8%
ESG/지속가능경영 추진 부서 - ESG추진TF, ESG기획/경영팀 51.2%	기부금 평균 - 매출액 대비 XXX% 159억 원	ESG 이슈별 - 소비자 / 인권·노동 영역 미흡 - 지배구조 / 지역사회 영역 우수

CSR의 국내현황

- (추진부서) ESG 경영선포에 따른 ESG 추진조직을 개설, 특히 'ESG경영사무국', 'ESG 태스크 포스' 등의 임시 혹은 부서결합 형태로 역할 부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공시 충실성) ESG보고 의무화 논의가 됨에 따라 2020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공시를 진행(35개社 최초보고서 발간)
- (글로벌 참여) ESG분야 국제현장, 선언문, 원칙 준수, 이니셔티브 가입에 대한 외부 공시는 공동 이니셔티브로는 SDG와 세부목표를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업별 이니셔티브(금융, 철강, 전자 등) 참여 사례도 증가

연도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sa.or.kr/ksi/5011/subview.do>

CSR의 현황

- ESG 관련하여 유럽 및 미국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 ESG위험에 대한 여러 소송과 판결이 진행 중(공시내용 ≠ 실제내용)

〈테라초이스(TerraChoice) '그린 워싱의 6가지 죄악들〉

① 상충효과 감추기 (Hidden Trade-off)	작은 속성에 기초하여 환경친화적이라고 라벨링
② 증거 불충분 (No Proof)	라벨 또는 제품 웹사이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환경적이라고 주장
③ 애매모호한 주장 (Vagueness)	너무 광범위하거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 사용
④ 관련성 없는 주장 (Irrelevance)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을 때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구별되는 요소가 아닌 점을 진술
⑤ 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Lesser of Two Evils)	범주가 전체적으로 환경적이지 않을 때 그 범주에 있는 다른 제품보다 더 환경적이라고 주장
⑥ 거짓말(Fibbing)	사실이 아닌 점을 광고
⑦ 허위 라벨 부착 (Worshipping False Labels)	허위인증 라벨 사용을 통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 검증 또는 인증을 가진 제품을 암시

ExxonMobil

美매사추세츠주정부
엑슨모빌 소송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오류공시 혹은 생략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기회요인으로 접근
- 구체적인 사회문제 정의
- 기업의 업과 연계성 강화
- 이해관계자 참여형/콜라보레이션
- 성과의 측정(정성 및 정량)



21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 대웅제약의 참지마요
- 느린학습자(발달장애인) 대상 사회공헌 사업
- 문제정의: 질병 조기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접근성下
- 피치마켓(문해력) 협업 + 교육봉사단 연계



감염병 예방 쉬운 글 도서·질병표현 돕는 AAC 그림책 제작



발달장애인의 질병표현을 돕는 의사소통 도구책 (사진: 대웅제약)

22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좋은느낌

처음생리팬티

좋은느낌은 여성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생리 건강과 평등하고 안전한 월경권을 증진하며 함께 고민합니다

Living well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Femininity
Respect herself
as a women

Authenticity
Being her best
friend

좋은느낌의 '힘내라 딸들아' : 여성용품 브랜드로서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월경권을 위해 청소년들의 '생리 빈곤 (Period Poverty) 문제 해결에 동참, 기여 사회공헌 → 포용적 경제모델로 확장 중



보건교사협의회와의 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초경을 맞이하는 아이들까지 포함

23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동구밭

친환경비누/위생용품/ 화장품/농산물/화장품/친환경비누/교구/사회성교육 등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체

기업명	(주)동구밭	기업구분	중소기업
대표자	노순호	설립일	2014년 12월 29일
매출액	10억 ~ 50억 미만 (2019.12. GAAP 개별)	종업원	40명 ~ 70명 미만 (2020.9.)
평균연봉	3,000만원 미만 (2020.10.)	인증현황	벤처기업, 강소기업
전화	070-4282-9626		
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56 경성여린이집 B동 101호 (우)04775 지도보기 퀵찾기		



24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 Q. 구체적인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 Q. 사업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 Q. 기업 고유의 자원과 역량이 연계되었는가?
- Q. 사회적 가치 창출/경제성과



25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방글라데시의 빈곤과 영양부족문제를 척결하고 밸류체인을 통해서 사회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07년 최초 제품 출시
(80g컵 - \$0.08달러 판매)

Charity money has **only one** life
But social business ... **endless** lives
Touches **many more** lives



300,000

beneficiaries

500

farmers living better by selling their milk to Grameen Danone

350+

jobs created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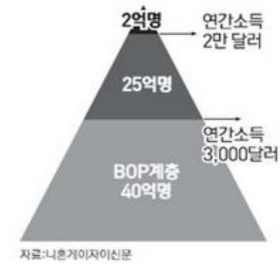
어떠한 관점에 CSR사례들을 바라볼 것인가?

❖ 저성장 시대: 포용적 비즈니스에서 해답을 찾다

메시지는 짧고 명확하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단기 이익을 넘어서 일본 기업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 효과는 혁신 주도, 시장 확보 및 공급망 강화 등 다양하다. 기업만 좋은 것이 아니며, 그 동안 소외 받던 소비자, 즉 극빈자도 더 강력한 지역사회, 생산성, 좋은 일자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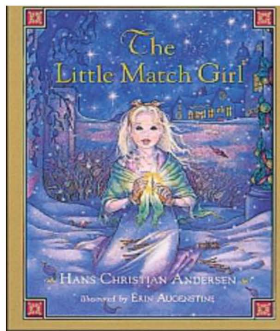
- Q. 구체적인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 Q. 사업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 Q. 기업 고유의 자원과 역량이 연계되었는가?
- Q. 다자간 협력 모델인가?
- Q. 사회가치 창출/경제성과

세계인구 소득수준 피라미드



지역개발 + 역량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 19세기 유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위험의 외주화'의 사례를 고발한 자전적 동화
- 산업재해 피해증세가 나타나기 전 해고된 후 목숨값 대신 공장에서 받아온 성냥을 길거리에서 팔다가 얼어죽은 소녀공의 이야기
- 1891년 구세군은 인체 유해성이 적은 적린을 사용한 성냥공장을 직접 운영
- 1908년 백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안 통과(1826년 마찰열을 이용한 성냥 개발된 후 80년 만에 금지)
- 1970년 영국 기업살인법 제정해 치솟는 산재율 통제



GSP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발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영역을 넘어 (Beyond Responsibility)

I P 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산업정책연구원 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7-5
Tel 02.360.0771 Fax 02.456.2044
Homepage www.ips.or.kr

김재은
E-mail jekim@ips.or.kr



NOTE

Lined area for taking notes, consisting of horizontal lines.





CSR

NOTE
